

치 사

새로운 기운이 가득한 새해 벽두입니다. 계사년 새해와 함께 대한불교청년회의 새로운 회장으로 2년의 임기를 시작하는 제27대 전준호 회장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새해의 밝은 기운이 대불청의 힘찬 도약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난 1920년 만해 한용운 스님을 비롯한 청년, 스님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대한불교청년회는 불교를 통한 민족의 각성과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100여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에는 참다운 인간, 올바른 사회, 인류구제의 구현을 원력으로 삼아 청년 불자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흔히 ‘한 나라의 미래를 알려거든 그 나라의 청년을 보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불교의 미래 역시 젊은 불제자들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만해스님 또한 청년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강조 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대한불교청년회는 우리 불교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신선한 사고와 젊은 힘을 보태왔습니다.

어느 시대나 청년은 낡은 세대를 대체할 수 있는 신선한 세대로서, 기성세대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청년을 진정 청년이게 하는 것은 바로 이상(理想)입니다. 원대한 이상만이 젊은 피를 끓게 하고, 실현에 대한 자신과 용기를 불어일으키는 것입니다.

청년 불자들의 가슴에 이와 같은 커다란 서원이 없다면 불교의 미래는 어두울 것이고, 청년 불자들의 가슴마다 한량없는 서원이 하나씩 있다면 그들은 이미 커다란 서원의 갑옷을 입은 보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우리 청년 불자들이 각자 자신의 서원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새롭게 새기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년간 대한불교청년회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제

26대 정우식 회장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새로운 회장에 취임하는 전준호 회장과 집행부 여러분에게는 오늘날 대불청에 요구되는 새로운 변화와 발전에 힘써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젊은 청년이지만 대불청의 이력은 이제 큰 숲을 이룰 수 있는 역사를 갖추었습니다. 100년이라는 역사에 걸맞은 모습을 갖추어가기 위해 필요한 노력이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대한불교청년회가 새롭게 도약하고, 청년 불자가 한국불교의 동량이 되기 위해 지금 필요한 역할과 사명을 실현하는 계기를 만들어 가기를 발원합니다.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의 이, 취임식을 축하하며 대불청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불기2557(2013)년 1월 27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